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25호
7월 6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

조용묵 목사... 교회와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책임 강조



총회장
신재영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 68차 총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 담임, 김전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6월 20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조용묵 목사를 감사사로 모시고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전직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의 대표기도, 대구·경북지방회장 도명수 목사의 성경봉독, 부흥사회 회원들의 특송,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조용묵 목사는 히 1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유물론과 무신론에 기반한 공산사회주의 이념과 종교 다원주의·혼합주의·포용주의 및 동성애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배후에는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사탄이 있다”고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판단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구하므로 성도로서의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조용묵 목사의 설교에 이어서 총주지방회 중경회장 김기진 목사의 한금기도, 전직총회장 유봉수 목사, 임종달 목사, 김용덕 목사, 김인찬 목사의 축사와 격려사로 신재영 목사의 총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하였다.

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행하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더욱 굳게 지켜 나가며 섬기는 자세로 교단 총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직무에 임하는 각오를 피력하였다.

말씀과 성령 충만했던 이날 예배는 직전 총회장 임종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부흥사회 회원들의 특송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68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 확정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6월 21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68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이석희 목사의 사회로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위원들을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목사고시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2020년도 목사고시 서류접수 마감은 2019년 8월 30일(금)까지이며 목사고시는 2020년 2월 10

일(월), 11일(화) 양일간 치러진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본지 1225호 000면에 게재되는 목사고시 세부일정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루트초장은
마음의
시냇물

‘도전에 대하여 담대히 응전하라’

조용묵 목사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시 78:9~11)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찾아온 경우와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떠한지 모두 그 날부터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숫자가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낙오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와 더불어 적절한 처방에 대하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나왔다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거부와 핍박을 두려워하여 곧장 물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응전에 보지도 않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러가 버립니다. 또한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오랜 세월을 견디며 싸우다가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전에 대해 기꺼이 응전하지만 환난과 핍박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까지 합세하면 결국 싸움을 포기하고 물러갑니다.

둘째, 신앙을 포기하고 물러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전쟁의 날”에 에브라임 자손이 물러갔다는 사실을 두고 탄식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같은 조상을 둔 에브라임 자손들이 전쟁에서 물러갔으니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관련되었듯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전쟁의 날에 마땅히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할 에브라임 자손들이 물러가 버렸듯이, 성도의 반열에 서서 천성을 향해 담대히 전진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과 마귀의 위협과 공격을 받을 때 물러가 버린다면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던 군사들”이었습니다. 전쟁의 날이팔로 병기와 활을 사용할 뜻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신도와 충성을 나타내 보일

좋은 기회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본모습을 남기는 기회가 됩니다.

셋째, ‘에브라임 자손’이 왜 전쟁의 날에 물러갔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닥쳐올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 원인은, 저희가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얹어매는 사슬이나 족쇄가 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함으로써 준행하는 사람은 전쟁의 날에 절대로 물러가지 않고 굳세게 서서 전진하게 됩니다. 셋째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자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지난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사와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원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쟁의 날에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니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물러가 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싸워야 할 때에 물러가 버립니다.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탄이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사용하여 신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도와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직면하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대치하여 나가는 최상의 병기와 활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병기와 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시험과 환난과 핍박의 도전에 담대히 응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총회목회대학원 19년도 여름 계절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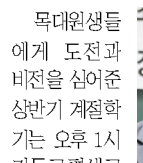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

총회목회대학원(원장 임종달 목사)은 지난 7월 1일(월) 오전 11시 30분 2019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4일간의 계절학기 강좌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개강예배는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 회자의 대표기도, 윤기석 목사의

성경봉독,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유 1:20-21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계절학기 참가자들을 축복했다.

전우진 목대원 원우회 회장의 한금기도 후 윤기석 목사의 광고, 목대원 교수 김용덕 목사(교단 중경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목대원생들
김용덕 목사

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준 상반기 계절학기는 오후 1시 기독교평생교육론(김용덕 교수), 성경과 성령에 관한 성경적 바른 이해 연구(신재영 교수), 목회신학과 실제에 관한 연구(이우중 교수), 목회상담학 연구(강태진 교수) 등의 강좌가 4일간 집중적으로 이어져 열과 성으로 준비된 강좌가 은혜 가운데 열매를 거두었으며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순절신앙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된 신학으로 전수받았다.

수련제 뜨거운 관심 속에 여름, 겨울 계절학기이 이루어진 이 강좌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 속에 주요강좌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 목회일선에서 오순절 성령충만운동의 확산을 위해, 바른복음전파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

한교연, 한국교회 본질 회복 위한 기도운동 펼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6월17일(월) 오후2시 군포제일교회에 텐홀에서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를 위한 설명회와 준비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설명회 및 기도회에는 전국 기도원 원장과 부흥강사 등 40여 명이 참석해 6월 한 달간 전국 50여 개 기도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에 대한 협력 방안과 실무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석범 목사(비상특별기도회 추진위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김영진 목사(민족통일선교협회 사무총장)의 기도와 임은경 목사(열린교회 담임)의 특송, 신광준 목사(비상특별기도회 추진위원장)의 “위기는 기회다”(속 4:6) 제하의 설교,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격려사 및 축도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바벨탑의 교훈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인간의 탐욕과 권력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



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본질이 훼손되고 세속 문화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데도 큰 교회, 큰 교단을 자랑하며 사본 오열로 나누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교회가 누구를 빗하기 전에 영적 싸움을 위해 통회자복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배 후 조태규 목사(비상특별기도회 추진위원)의 사회로 기도회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이어 준비기도회는 조태규 목사의 인도로 1)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와 복음 통일을 위해 2)한국교회 회개와 본질 회복과 삼합

(화합, 연합, 통합)을 위해, 3)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해, 다시 신석범 목사의 인도로 4)국가 안보 경제 사회 바른 역사관 수호를 위해, 5)종교인과 세를 앞세운 종교탄압 종지를 위해, 6)교회의 고유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종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1차 비상특별기도회는 오는 7월 1일(월) 오산리기도원에서 234.5부 성회로 진행되며,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는 5부 성회는 한교연이 모든 순서를 맡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사)한기지협, 6.25 상기 특별기도회

평화적 통일의 새 역사 위해 간절히 기도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진목 목사·이하 한기지협)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여전도회관에서 6.25 상기 69주년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고 한반도에 6.25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고 교류와 협력으로 새로운 동력을 얻어 평화적 통일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기지협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국가법외단체의 재정비와 새로운 정치체제를 선도하여 국민불안을 해소시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선언문은 또 자유한국당에게는 생산적인 정치력 발휘를 통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1부 예배는 공동회장 최병두 목사의 사회로 기간 전 감독회장 김진조 목사의 기도, 이사 강자현 장로의 성경봉독, 애성 증경총회장 조병창 목사의 6.25의 참상과 각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조병창 목사는 “6.25는 인명피해, 국토 파괴 등 동족상잔의 애절한 비극이었다.”고 말

하고, “전쟁은 여호와에게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기 이흥규 목사의 광고와 대표회장 신진목 목사의 축도 후 이어진 2부 특별기도시간은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의 사회로 고분 박재천 목사의 시 낭독 후 애장(합동보수) 총회장 이희두 목사가 ‘한반도에 6.25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애강 전 감독 손선영 목사가 ‘북한 공산정권 붕괴와 평화

통일 위해’, 애장(애장) 총회장 강기원 목사가 ‘정치권의 변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공동부회장 전용만 목사가 ‘침체된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2부 행사는 실무총무 한동철 목사의 합심기도, 목원대 전 교수 강흥복 목사의 6.25와 국가안보'라는 제목의 특강, 상임이사 한창영 목사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 6.25 노래 제창 후 공동부회장 박부용 목사의 마침기도와 공동부회장 유명태 목사의 조찬기도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전쟁과 다툼이 없는 복음통일 위해 기도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 등, 제69주년 6.25 상기연합예배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지난 6월 25일(화) 여전도회관 투이시기넨관에서 제69주년 6.25 상기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이사장 양정섭 목사)를 비롯해 (사)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형렬 목사는 신 30:1-10, 마 28:18-20 말씀을 본문으로 “은총의 민족”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 없는 은총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첫째,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간구해야 할 때이며 둘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하며 셋째, 전쟁과 다툼이 없는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의 민족으로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기를 비란다고 전했다.

이날 연합예배는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사)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의 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배총회 총무 정현 목사의 성경봉독,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 연주와 개혁신당단의 찬양,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연합예배는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사)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의 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배총회 총무 정현 목사의 성경봉독,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 연주와 개혁신당단의 찬양,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연합예배는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사)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의 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배총회 총무 정현 목사의 성경봉독,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 연주와 개혁신당단의 찬양,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장로교총연, 게르교회 건축 헌당예배

몽골 전통 건축양식으로 큰 규모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는 지난 6월 18일 몽골 울란바토르 남랴흐 지역에 게르교회를 건축하고 현지 몽골 교회지도자들과 성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번 교회건축헌당은 몽골 전통 건축양식인 게르 형태인데 15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이다. 한장총에서는 교회건축 일원전원과 강대상 두 개를 지원하고 헌당예배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 기념수신 100개와 빵을 선물했다.

송태섭 목사(한장총 대표회장)는 “천상의 소리(렘 1: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곳 김동근 선교사(몽골기독교총연합회 대표)와 함께하는 지역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하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강벌드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천상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지난 6월 17일(월) 강릉 선교장에서 강원 지역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준비 간담회를 가졌다.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은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개최하는 국내 대표적인 자살예방 캠페인으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26만여 명(누적통계)이 전

국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캠페인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는 이성희 목사(한국생명영전화 이사장), 현성철(산성생명 사장),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 3명의 공동대회장을 필두로 각계각층 인사 20여 명으로 구성하여 강원지역 자살예방을 위한 문화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한근 강릉시장 장시택 강릉부시장을 비롯해 강릉시기독교연합회, 강릉중앙감리교회, 강원영동 CBS, 강원영동국동방송,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상담학회 등 강원지역 여러 단체가 모여 캠페인 운영 및 홍보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기침미래포럼 ‘침례교회, 길을 묻다’ 세미나

김선배 침신대 총장 “복음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해야”

(사)기독교한국침례회 미래포럼(이사장 지퍼 목사)이 지난 6월 13일(목) 여의도침례교회(담임 국명호 목사)에서 ‘침례교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1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과 오윤교회 김은호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인구 절벽 시대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강의한 김은호 목사는 무너진 주일학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꿈이있는미래 사역을 소개하고 ‘원 포인트 통합교육’의 개념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우상과 죄악으로 물든 유대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하스기아왕의 가



장 큰 실수는 자신의 신앙을 다음세대에 전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의 아들 므낫세는 결국 하스기아와는 정 반대의 길을 걷게 됐다”면서 “지금 우리도 이런 하스기아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그 대안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이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 대안으로 스거룩한 삶의 패턴을 심어주고 스마음이 아닌 꿈을 꾸게 하며 스다음세대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 표준정관·매뉴얼 배포

표준정관위원회 검토, 자문회의 거쳐 최종 확정

한국교회 표준정관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대표회장 이정익)가 7월9일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이 배포될 예정이며, 제1장 총칙, 제2장 교인, 제3장 직원, 제4장 기관, 제5장 재산과 재정 등 각 장별로 읊원필 교수

(홍익대)와 명재진 교수(총남대), 서한재 교수(중앙대)가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회장 서한재 교수는 “그동안 교회법학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정관에 관한 자문과 상담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참조하여 표준정관 초안을 마련하고 목사, 장로, 법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표준정관위원회에서 많은 검토회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과 교회, 기독교 언론을 초청한 공개자문회의에서 표준정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여기에서 높은 관심을 확인하게 된 것이 큰 힘이 됐다”며 “내부적으로는 학회 원로이사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학회 이사회 결의로 표준정관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일꾼이 되자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6월 4일(화) 오전 11시 순복음복있는교회(담임 황연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안병섭 목사(순복음창성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 부회장 박영욱 목사(순복음천주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막 11:20-25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받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자"고 전하였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안미교회)의 헌금기도와 최성진 목사(울산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월례 회부를 진행한 후 순복음복있는교회(담임 황연선 목사)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보은순복음교회 창립 49주년 감사 및 임직예식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는 지난 6월 30일(주일) 오후 3시 보은순복음교회(담임 윤경현 목사) 창립 49주년 기념 감사 및 시무장으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명예권사, 명예 장로, 은퇴장으로 임직예식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증평 서희명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신병설 목사(주사랑 순복음교회)의 기도, 지방회 서기 민병훈 목사(예광순복음

교회)의 성경봉독, 교단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창 13:13-18 말씀을 본문으로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기운에는 이 땅에서 실현될 약속들이 많다.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중에 사실이다. 앞으로도 지방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더 크게 부흥될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 하자"고 강조했다.

2부 임직식은 담임 윤경현 목사의 진행으로 전회돈, 김영일 시무장으로, 신혜봉 명

예장로, 이광용 은퇴장으로, 김원기, 여상훈 안수집사, 권준월, 이정선, 강윤정, 강환숙 시무권사, 이광명 명예 안수집사, 구화자, 박복래, 정순자, 김선희, 이창순, 김순정, 김정숙, 이윤이 명예 권사가 지방회 안수 위원(위원장 김경준 목사, 위원 김상용 목사, 이문근 목사, 김정수 목사, 최동순 목사)의 안수를 받고, 증서와 축하 임직패, 축하 꽃다발을 받았다.

3부 축하 및 권면에서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의 진행으로 지방회 증경회장 김윤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의 권면, 정진웅 목사(보은 기독교연합회장, 보은 성민교회)의 축사, 증경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아펜 순복음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보은순복음교회 중창단의 축하와 임직을 받은 김영일 장로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지방회 증경회장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창립 49주년 감사 및 임직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보은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하늘소망교회 교단가입예배 드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6월 25일(화) 하늘소망교회(담임 조정훈 목사)에서 교단가입예배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진태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서경호 목사(복있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남순 목사(협문산교회)의 기도와 정세장 목사(안성은혜교회)의 성경봉독 그리고 하늘소망교회 여선교회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롬 8:31-39 말씀을 본문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비이연리의 관계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믿을 생활을 하면서 주의 사랑을 감당할 때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 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서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약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수가 있음"을 강조하며, 특별히 국내 정세와 wcc로 인한 교계의 혼탁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중심의 교단에 가입한 하늘소망교회 조정훈 목사와 성도들을 축복하였다. 이어 표찬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의 헌금기도와 권선희 사모의 헌금 송에 이어 김남순 목사(맑은빛교회)의 축사, 김기민 목

사(벤엘교회)의 권면이 이어 조정훈 목사의 광고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wcc와 종교다원주의로 인하여 기도하던 중에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다"라며 감사함을 전하였다. 이어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하늘소망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오찬을 마친 후에 인근 찻집에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후에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화제의 신간 / '힘쓰기를 배우라'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가 서정복 목사의 신간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동이트는 새벽, 시린 손 호호불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하는 남원중앙교회 새벽제단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이 오롯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음·소망·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귀한 말씀이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 갈급한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글방 예담 발행

“야곱의 결심”을 따라서...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6월 27일(목) 오전 11시 녹동순복음교회(담임 백영자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배용환 목사(순복음전원교회)의 대표기도, 증경 지방회장 김갑신 목사(새여수 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창 33:1-4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의 결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결심할 때 문제가 풀리고 보호를 받을 것이며, 또한 口耳之學(구이학-듣은 것을 새기지 않고 그대로 남에게 전하기만 할 뿐 조금도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한 학문을 말한다) 하지 말고 주의 종은 자기가 전한 말씀을 본인이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교단총회와 산하교회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증경 지방회장 김갑신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의 진행으로 총무보고, 서기, 회계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타 인건을 처리한 다음 회장

백영자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녹동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모든 일정을 성령의 은혜기운에 모두 마치고 귀가했다.

오네시모를 살린 '용서와 사랑'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장호순 목사)는 지난 6월 27일(목) 오전 11시 천복기도원교회(담임 김우연 목사)에서 지방회 소속 전 교역자

와 사모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장 장호순 목사(순복음금강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섬기는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한 목사는 문 1:8-22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였다.

이어 회장 장호순 목사의 헌금기도, 총무 전홍식 목사의 광고, 지방회 부회장 원문경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장호순 목사의 인도로 증경 지방회장 황수반 목사(순복음나눔교회)의 기도 시작하여 각부 보고와 회부를 처리 하였으며, 교단증경부총회장 조원의 목사(추계교회)의 기도로 모든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3부 교제 시간에는 천복기도원교회에서 맛있는 숯불돼지고기를 오찬으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기운에 월례회를 마쳤다.



로템나무교회 교단가입 및 성전이전 감사예배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경진 목사)는 지난 6월 24일(월) 오전 11시 로템나무교회(담임 김연자 전도사)의 교단 가입예배 및 성전이전예배를 드렸다.

타교단에서 사역하던 김연자 전도사는 WCC분제로 고심하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바로 선 본 교단에 가입하고 성전을 이전하여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진원 목사(예수이름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서기 손인환 목사(새벽교회)의 대표기도, 최월성 목사(예수기쁨교회)의 성경봉독, 직전회장 반인홍 목사(송도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반 목사는 요 11:25-26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을 네가 믿느냐'라는 제목



의 설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될 것"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장 김정근 목사(형성순복음교

회)의 권면, 증경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축사, 지방회 회계 김라함 목사(사랑의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임현경 집사의 특송, 반인홍 목사(송도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총회목회대학원 2019학년도 제1학기 종강예배

신앙의 본질에 흔들림이 없어야

총회목회대학원 2019학년도 제1학기 종강예배가 지난 6월 24일(월) 오전 11시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에서 드려져 한 학기 동안 수고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종강예배에는 총회 목대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교단 윤기석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 목대원 교수 최병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신 32:10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해주시는데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사역자로서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신학생들을 축복했다.

총회 목대원 원우회장 전우진 전도사의 헌금기도 후 사회자의 광고, 총회 목회대학원 교수 최병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생명의 말씀



정석현 목사

· 경城南지방회장
· 안성평강교회 담임

우리의 인생은 만남으로 출발하며,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시작되고, 형성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만남의 복이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 부모와의 만남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가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2) 스승과의 만남

좋은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옵니다. 스승을 통하여 학문과

지식과 교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헬렌켈러는 태어나서 2살도 안되어 말을 못보고, 듣지 못하며, 말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철들 때쯤 비판과 낙심으로 절망의 삶을 살다가 셸리번이라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셸리번은 헬렌켈러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으며, 훗날 그녀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때 셸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 도 없었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헬렌켈러는 오늘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3) 친구와의 만남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한 가난한 소년이 물에 들어가 그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건져준 소년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소년은 나는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이 소년은 런던에서 의학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프레밍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발견한 페니실린을 들고 가서 그 친구를 구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다윗을 사랑하고 친구로 대해주었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 할 때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정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왕자의 신분으로 세워서 아버지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갚았습니다(삼상 9:11).

4) 예수그리스도와의 만남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100여년 전에 이 민족을 사랑 하셔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이 땅 어두움에 잠들어 있던 이 민족을 깨웠으며, 이 민족은 깊은 어둠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였고,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

가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밤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고, 또 하나는 진주를 구하려 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나 진주는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은 부지런히 일하고, 구하려 다닐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를 위해 열심을 갖고 일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이 보화나 진주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하기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산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의 헌신, 충성,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 팔았다는 말씀은 나를 바우고, 나를 내려 놓고, 나를 깨뜨려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얼 깨뜨립니까? 나의 교만, 탐욕, 자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의

힘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고대인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아무 능력도, 힘도 쓸 수 없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할 때는 절대 나사지 않습니다. 실패하든 넘어지든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습니다. 너 방법대로 네 맘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 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영생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방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값진 보화와 진주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런 고민은 하지 않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공통된 공약이 되기에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이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재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고가 되게 된다.

정부(교육부)는 이번에 일선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취소를 결정판은 학교들에 대하여 7월 안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인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좋은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한 자사고를 '적폐'로 낙인찍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교육은 장시간에 걸쳐 투자하는 부분이다. 조선석가(朝鮮夕歌)하듯, 또는 정치적 이념몰이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 정

예장 합신, 인권위정책 반대집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지난 7월 1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장 합신 증경총회장 박삼열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모한 정책들은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 투성"이라고 했다.

SQ복지문화교육 아카데미 개설



한국복지문화교육원(원장 정상분 박사)이 SQ복지문화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SQ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적 믿음의 활로를 열어가기로 했다. SQ아카데미를 개설한 원장 정상분 박사는 "이제 SQ로 인간의 본능지수인 6대 지능을 일깨워 복음전파에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여러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SQ를 전파하고 싶다"고 밝혔다.

빈곤층 여성 돕기 기부 캠페인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대표 지경영)는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기독교연예인 이하늬와 함께 가난으로 꿈을 잃은 전 세계 빈곤층 여성들을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 '옥스팜 워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오는 9월 1일(일) 강원도 안제군 소양강 둘레길에서 열리며 8월 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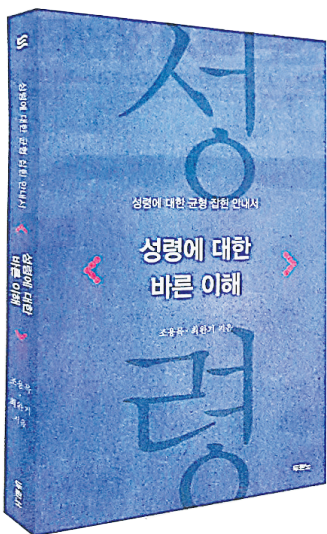
2019 미래 청년 콘퍼런스



연세대학교와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19 미래 청년 콘퍼런스가 지난 6월 28일(금) 연세대학교 백주년콘서트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콘퍼런스는 하형록 회장(미국 팀하스)이 기조강연을 했으며, 이후 강응원 대표(禱祈찬관), 윤현보 부사장(제작사 오월동주), 여미영 대표(디자인 스튜디오 D3)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질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유행하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저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잊지 말자, 6·25의 참상과 교훈을!”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주최 ‘6·25 구국기도성회’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주최 ‘6·25 구국기도성회’가 지난 6월 24일(월) 오후 8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성회는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 한관희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부영 목사의 기도, 부서기 이종문 목사의 성경봉독, 연합회 초대회장 조병창 원로목사의 헌전 5:8-9 말씀 본문의 ‘6·25 참상과 성

도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합심기도 순서로 이어졌다.

조병창 목사는 설교에서 69년 전 당시 6·25의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남용과 방종’ ‘지도자의 안일’ ‘병탄한 사회’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을 들고, 현재의 남북한 상황은 그 때 못지않게 유사하며 심각하다고 강조하였다.

조 목사는 이어서 어린 시절 직접 목도한 북한군에 의한 참상을 말해주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정계 인사 등 지도층의 각성과 온 국민들의 지각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교회와 성도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헌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연합회 지분위원 김찬곤 목사의 인도로 회개기도와 함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충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이 앞당겨지도록, 안양시 성시화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동성애 등 성경에 반하

는 악법과 정책의 폐기를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날 성회는 부회장 김진호 목사의 마무리 기도, 연합회 대표회장 임용택 목사의 인사말씀, 사무총장 김윤목사의 광고에 이은 은혜와진리교회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선교회 주최 ‘국가안보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에 의한 6·25 전쟁 발발 69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노혜미야 기도회)가 지난 6월 25일(화) 저녁 8시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에서 북한선교회 주최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열렸다.

각 성전에서 모인 청년 등 성도들은 북핵 폐기의 본질이 흐려지고 우리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안보불안이 기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이날 기도회는 북한선교회 이형준 회장의 사회로 김규식 장로의 기도, 김피터 목사의 롬8:31-39 말씀 본문의 ‘슈퍼 정복자’라는 제목의 설교, 합심기도 순서로 진행되었다.

성도들은 6·25 전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북한의 우상숭배 타파와 복음화를 위해,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헌신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폐능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사함)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압축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물린

-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복대 연구논문

4)호흡기, 위

- 1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 1 면역력 증가

6)칼슘

- 1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밀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1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 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1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1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복대 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0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9. 8. 30(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9. 9. 0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9. 9. 26(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9. 8. 30(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0. 2. 10(월)~11(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독활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워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뭉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험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파뚫힌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렌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렌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파뚫힌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저널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세이버터, 마카데미아넛오일등

⑨ 젤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러운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사)기독교보수교단총연 6.25상기 구국기도회

포럼 및 국가 유공자 시상식, 위로잔치 열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우측 사진)는 최근 총연합회 월드비전 센터에서 6.25 전쟁 69주년 상기 국가안보와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1부 예배 및 구국기도회를 갖고, 2부 김영하 박사 초청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의 의미'란 주제로 포럼을 한 후, 3부 국가 유공자 시상 및 위로잔치를 진행했다.

한보총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한총연·월드비전센터에서 1부 민족사랑 운동본부 주관으로 본부장 권태섭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서영웅 목사가 기도들, 이상원 목사가 성경봉독(느 1:1-11)을, 남성운 목사는 '눈물 흘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위기에 처한 우리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일념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며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진 구국기도회는 △국가안보와 자유복을 평화통일을 위해 왕재중 목사, △비전과 목적을 위해 박다임 목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황도영 목사, △회원과 회원단체를 위해 고종성 목사 등이 각각 기도

에 나섰다.

또한 2부 Forum에서 개혁신학위원회 위원장 허식 목사의 진행으로 김나단 목사가 기도들, 김영하 박사는 요 19:17-18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의 의미'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김창룡 목사는 디아스포라 초청 세계대화에 대해 경과를 보고하면서 디아스포라 초청 세계대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기를 기도해 왔으며 이 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초청해 국위 선양은 물론 미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연구와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 한보총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WCC 대제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목사, 개혁신학위원회 위원장 허식 목사, 교육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영하 목사,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박동호 목사, 북방선교위원회 위원장 하요한 목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식 목사,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장룡 목사, 여성사모위원회 위원장 진봉자 사모, 원로목사위원회 위원회 남성운 목사, 의료선교위원회 위원장 전범준 목사,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영웅 목사, 직장선교위원회 위원장 권태섭 목사, 청소년선교위원회 위원장 박승민 목사, 항공선교위원회 위원장 변순철 목사, 해상선교위원회 위원장 장석일 목사 등을 임명하고 총재 허영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북방선교위원회 주관(위원장 하요한 목사)으로 제3부가 시작돼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허영무 목사 외 5명에게 국가 유공자 시상식에 이어 아가페에 술선교단 단장 권정구 목사의 진행으로 국가 유공자를 위한 위로잔치가 열려 많은 박수갈채를 받는 출연진들과 관객들이 하나가 돼 화기에애한 위로잔치가 됐다.

이어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의 축복기도로 막을 내렸다.

복음평화통일 위한 미얀마 양곤기도회

세기총,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통일되게 하소서' 주제로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6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에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Novotel Yangon Max 호텔에서 제16차 통일기도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엡 1:10)'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의 대회사, 준비위원장 김균배 목사의 환영 및 내빈소개, 초청된 VIP인사들의 환영사, 미얀마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미얀마총) 전 옹환 정모의 대표기도, 미얀마총 김상길 선교사의 성경봉독, 미얀마총 김미혜 권사·김귀래 집사의 특별찬양, 세기총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MBC이무총장 로버트 목사, '미얀마 복음화를 위하여' 이만철 선교사가, '할렐루야 굿주리는 북한동포들과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미티공 태국선교사가, '3만 해의 선교사와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하여' 정광수 목사가 각각 인도했다.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는 대회사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 정세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면 희망의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기도운동은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와 함께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평화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이사장 고시영 목사는 격려사, 미얀마 한인회 임효택 위원장과 MBC총회장 Maung Mayung Yin 이 축사를 했다.

이날 기도회는 사회자의 인사와 광고에 이어 다함께 '통일의 노래'를 손에 손을 잡고 부른 후, 세기총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세기총은 지난 19일(수) 오후에는 세기총 미얀마지부장 임명식(지부장 김균배 선교사)을, 21일에는 미얀마 국립양곤대학교초청으로 역사학과 학장 모모탄 박사로부터 영접과 인사를 받고 학교가 추천하는 우수 교수와 학생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탐방 할 수 있는 항공료를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어 역사학과 석사과정의 학생들 50여 명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성료

“가슴이 뻥 뚫리는 사모세미나입니다”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지난 6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대표회장 설동옥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분(이사장 피종진 목사·발행인 설동옥 목사)의 공동주최로 예정교회(설동옥 목사) 다산성전에서 진행되어 성료했다.

특히 이번 목회자사모세미나는 지난해에 예정교회 가다산 새 성전을 건축하는 중이라 해외 필리핀 세부에서 진행하여 국내에서는 2년 만에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세미나는 해마다 예정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정교회 가다산에 새롭게 건축한 새 성전에서 세미나 진행을 해서 더욱 관심과 기대가 컸다.

깨끗하고 새로운 성전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참석하는 사모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고 실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2박 3일 동안 사모들은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한 세미나가 되었다.

세미나는 마음을 여는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이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고 식사 시간에는 풍성한 식탁의 나눔을 통해 영육이 강건해지는 쉼과 회복의 세미나가 되었다. 쉬는 시간마다 삼삼오오 만나는 새로운 사모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사모들도 많았다.

벤엘교회 김진숙 사모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20년 전에 참석했다면...”이라며 감사와 아쉬움을 표현했고 “최고의 강사, 최고의 찬양, 식사, 환경 등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대산중앙교회 명순에 사모는 “행복한 바이러스 비타민 총천으로 영육이 건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고 은빛교회 하명연 사모는 “정성스레 섬겨주시고,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 은혜롭게 하심을 감사하고 장소는 편안해서 좋았습니다.”라고 전했다.

‘애기봉 평화의종 예비 타종식’ 거행

한미동맹 평화포럼 창립예배도 드려

‘애기봉 평화의종 예비 타종식’이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환)와 남북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영진) 주최로 지난 6월 6일(목) 김포에 소재한 애기봉전망대에서 200여명의 관계자와 교계, 정계 등 각급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타종식에서는 카즈미르 박사를 비롯한 해병대 제2사단 군악대와 강남교회 찬양단원이 축하와 찬양을 했다. 6.25당시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들에게 국민보은메달과 평화메달을 수여했다.

이어진 2부 순서는 국민의례와 송기환 이사장의

경과보고, 이사부엘 미8군 군종단장의 감사인사, 김철우(미8군 사령부) 돌쉬 데이비트(7공군) 신타이로 로드리스(주한 미해군) 류명옥(미2사단) 군종실장 등은 한반도 평화대상에 메달을 받았다.

그리고 몬르 카즈미르(Munr Kazmir) 미국유대인협회 부회장이 한국전쟁 당시 탄피를 녹여 만든 평화메달을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으로 상패와 함께 시상했다.

이날 축하에는 이상훈(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 송용필(한국독립교단연합회장), 김영진(전 농림부장관), 이주영(국회부위원장), 안상수(국회예결위원장), 권

오성(전 육군참모총장)이 하였다.

3부 순서는 ‘축복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 등 축하와 함께 몬르 카즈미르 박사는 연사로 나와 “종교의 자유와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유대인과 한민족이 힘을 합하자”고 말했다. 행사는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후 오찬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고 모두 마쳤다.

한편, 지난 6월 7일(금) 오전 10시에는 국회보관 3층 귀빈실에서 ‘한미동맹 평화포럼 창립예배’와 미국유대인협회 몬르 카즈미르(Dr. Munr Kazmir) 초청 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 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날짜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성결교회연합, 10회 정기총회 개최

문정민 대표회장, “성결복음 확산에 주력할 것”



한국성결교회연합회(이하 한성연) 제10회 정기총회가 지난 6월 20일(목) 오전 11시 안양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아람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회예배는 문정민 목사(예성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장순필 장로(나성 장로 부회장)가 기도를 했으며, 류정호 목사(기성 총회장)가 ‘연합의 아름다움(시 133:1~3)’이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영수 목사(예9대 대표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총회에서는 회원점명과 개회선언, 회무 및 안건처리와 있었고, 임원선거에서는 예성 총회장인 문정민 목사가 제10대 한성연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문정민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성애문제, 낙태죄 폐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이 복음전도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질서를 거슬리는 현실이 기성, 나성, 예성의 핵심전도의 표적요, 한성연 3개 교단의 공동의 유산인 ‘성결’이 한국교회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분파주의로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한성연이 한국교회에 죽어가는 영성을 살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독 성결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응집시켜 성결복음의 확산에 주력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문정민 대표회장은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17년 한성연 임원회가 3개 교단이 ‘한국성결교회’라는 명칭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결의를 했으며, 한국교회의 정체가 현실로 다가 온 중요한 시점에 ‘한국성결교회’라는 명칭을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성결복음 확산의 시너지 효과를 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폐회 후에는 분과(신학, 교육, 해외선교, 국내선교, 사회복지, 부흥, 평신도, 홍보출판, 문화체육)가 각 분과 별로 모임을 가졌다.

한성연 제10회기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문정민 목사 △공동회장 류정호 목사, 신민규 목사 △공동부회장 김윤석 목사, 이광진 장로, 한기채 목사, 정진교 장로, 조상을 목사, 장순필 장로 △서기 신현파 목사 △협동서기 신전호 목사, 목영두 목사, 이봉조 목사, 이승갑 목사, 이관호 목사, 김진호 목사 △회계 김원철 장로 △공동회계 권용환 목사, 노수현 장로, 이광섭 장로 △감사 조한덕 장로, 임호창 장로 △간사 이강준 목사, 김진호 목사, 이창환 목사.

청년기업 e청춘, CTS에 의료용품 기부

청년기업 e청춘 대표 임정호은 지난 25일 CTS인터내셔널에 선교사들을 위한 의료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CTS인터내셔널 박준서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달받은 의료용품은 CTS인터내셔널의 탄저니아 지부를 비롯하여 열방선교사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임정호 e청춘 대표는 “그동안 주위에 개인 어르신들 및 경로당 등에 기부활동을 하였지만 다른 의미 있는 곳

에도 기부를 하고 싶다”며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의 선교사들을 도와 세계 곳곳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준서 사무총장은 “청년기업 e청춘의 훌륭한 생각과 기부를 기쁘게 여기며, 나노선교사 프로젝트와 맞물려 선교사의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곳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전도현장에 고백이 있는 생명전도!

저는 2018년 2월에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에벤에셀교회는 히브리어 헬리어 원어 설교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원어복음을 통해서 제 신앙과 사명감이 확고해진 이후로 저는 이 원어 복음을 잘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해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동두천에서는 2년 전부터 10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매주 금요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향토소금을 가지고 전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감시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 향토소금 전도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에 있었던 강원도 원주 명성수양관 전도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적인 인도하심으로 인해 동두천에 있는 교회에 와서 현장전도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십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세트전도를 통해서 13명의 영혼들이 교회를 받

고 등록했으며, 5군데 사업장에 교패를 부칠 수 있었습니다.

가족세트전도의 특징은 4가지입니다. 첫째, 처음만난 분들과 신속한 관계가 이뤄지는 ‘관계전도’다. 둘째, 처음 만난 분들과 성경이 역사하는 ‘능력전도’다. 셋째, 전도현장에 고백이 있는 ‘생명전도’다. 넷째, 개척교회에 부흥되는 ‘비전전도’다. 박영수 목사를 통해서 가족세트전도와 은사집회를 하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 에벤에셀교회에 결산자를 하라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원어학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부터 원어복음을 위해 집중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하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박영수 목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동두천시 에벤에셀교회
박미례 목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탈북어린이 강제복송 반대집회

9살을 구해내자! 13살을 구해내자!

지난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대안문(시정역 2번 출구) 앞에서 중국정부가 구금중인 탈북어린이 9살 최모양, 13살 여자 어린이이와 탈북민 강제복송 반대 집회와 행진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새나라 국민운동연합(대표 홍창호)과 일사각오 구국 목회자 연합(일목연)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했다.

일사각오 구국 목회자연합 사무총장 윤치환 목사는 “북한 탈북민들과 탈북아이들을 복송한다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3대 세습 집정은 최고지도자는 이들을 공개 처형하고 지옥불 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갈 것”이라며 “우리 일목연은 탈북민들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 정부는 살인 정권에게 탈북민들

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탈북 주민들을 복송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북한 탈북민들과 탈북 아이들을 구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교회는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데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했다.

홍창호 대표는 “며칠 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라며 “지금도 북에는 70만 이상 독재자가 있고, 9살 여자아이도 13살 여자아이도 복송되면 고문, 공개 총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복송을 중지해야 된다”고 호소

하였다. 또한 중국은 UN인권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913운동(구해내자! 하나되어! 삼일정신으로!)을 펼쳐나가기로 하고, 깨어있는 국민들과 국회의원,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이번에는 꼭 청와대 국민청원을 20만 명 이상 동의하여 청와대가 움직이게 해달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검색어 ‘9살’로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https://www.ipresident.go.kr/petitions/Temp/UEK98>

홀트-롯데 GRS, ‘mom편한 글램핑’ 개최

미혼한부모가정 초청 가족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진행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연)와 글로벌 외식 기업 롯데 GRS대표이사 남익우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동화힐링캠프에서 미혼한부모가정 초청 ‘mom편한 글램핑’을 실시했다. ‘mom편한 글램핑’은 2017년부터 롯데 GRS가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초청된 미혼한부모가정(약 30가정)은 ‘나만의 화분 만들기’, ‘미니체육대회’, ‘가족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롯데 GRS 사후대봉사단은 미혼한부모가정과 1:1 결연 매칭을 통해 글램핑 기간 동안 미혼한부모와 아동 모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이번 mom편한 글램핑을 통해 미혼한부모가정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지원해 주신 롯데 GRS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히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http://agpgs.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수입/배급 **CBS**

단체인람 신청 | ☎ 02.2650.7942(친구사이) | facebook.com/cbscinema | CBS시네마 | 전채관람가

6월 13일, 전국 극장 대개봉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왠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떼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만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

초대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주님 사랑합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좋은 날로 택정하여
내 갈 길로 가려 할 썸, 날씨조차 좋구나.
바람아 구름아, 누가 나를 시기하랴

아쁠싸, 한바다엔 큰 파도 이는구나
오호, 내 어찌 홀로 이 풍랑 이겨 낼꼬

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의 뱃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 계심은 익히 들어 알았건만
정녕, 풍랑 만나 일그러진 인생의 쪽배 위에서
사랑으로 동승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눈으로 친히 뵈고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도와 주소서,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소서
바람도 바다도 말씀 앞에 잠잠하니
천지와 만물 위에 더 높으신 주님 영광
두 손 들고 고백함은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초점

6.25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자

이번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이하 한보총)에서 6.25 한국전쟁 상기 69주년 구국기도회 및 포럼을 하면서 3부 행사로 6.25 참전유공자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감사장 및 상품 전달식에 이어 어르신 효도 위로잔치를 행하게 된 동기는 교회에서 해마다 행해지는 6.25 행사가 구호만 있는 행사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여겨지기에 행한 행사이다.

정작 6.25 한국전쟁에 관한 반공의식과 애국심 그리고 당시 전쟁으로 인해 수없이 죽어간 이름 모를 학생들과 군인들의 죽음과 희생 등의 뜻 깊은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형식으로만 치우치는 오늘날의 교회 행사에 이번 한보총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시대가 갈수록 안보에 관해 관심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젊은 층 심지어 청소년층에까지도 6.25 전쟁에 대한 역사관이 왜곡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으로 공산주의자인 자기 아버지를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수많은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기에 이

번 행사를 열었던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발발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국 휴전협정에 따라 일단락되기까지 당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또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의 생명을 적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초개와 같이 여기며 맨몸으로 전쟁터에서 싸우다 신화 하여간 이름 모를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청춘을 불태웠으며 요행이도 생명은 건졌으나 한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면서도 내 나라를 지켰고 사랑하는 내 자녀 가족을 지켰다는 자긍심 하나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상이용사와 참전용사들.

일평생 몸 안에 포탄 잔파괴물과 수류탄 파편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사시는 분을 보면 그 고통을 어떻게 도와주어 털어줄 방법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서 숙절없이 지켜보아야만 하였던 가족들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고 처절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작금의 이 사회는 그들을 외면하고 냉대하 멸시 높고 병들은 보잘 것없는 한 사회의 높은

이로 치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베풀었으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무엇으로 보답 하였는가를 생각하고 반성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웃에서 젊어서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전용사들이 지금은 병들고 지치고 외로움에 소외당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돌볼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교회가 작은 도움이나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같이 나누며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숭고하고 고귀한 뜻을 잊지 않기 위해 이제나마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교회가 발로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한보총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기독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2019년 6월 24일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주 목사

사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남·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자리를 함께한것은 역사적 이벤트임에분명하다.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이 53분 동안 관문잡에서 준비되지 않은 회담도 가졌다.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두사람의 단독 회동 시간으로는 결코 짧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10m 이동하는 퍼포먼스까지 벌임으로써 ‘북한땅을 밟은 첫미 대통령’이 됐다.

관문잡에서 세 나라 정상들이 만나기까지 긴박한 시간이 흘러갔다. 북·중, 한·중, 미·중, 한·미, 북·미 정상간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8일까지만 하여도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공표하였고, 한국에 대해서는 미·북 간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으로 할난하였다.

그런 가운데 두 나라의 정상들이 군사분계선을 각각 넘나들고, 세 나라의 정상들이 이 자리에서 만난것은 확실하 큰 이벤트임에 틀림없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FVVD)이다.

지난 2월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없어서 결렬되었다.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 외에도 여러 군데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도

모두 국제 사회에 공개하고,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벤트 뒤에 감춰진 위선과 평화로 과대표장된 것은 없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평화의 제스처를 하여도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비가 없다면 견집을 수 없는 피해를 맞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달수록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중심’을 잡아야 할 텐데, 양국 모두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재선(再選)출마 출정식 후 모든 현안을 ‘재선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적·병행적’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 또한 평화·대화 지상주의에 매몰돼 그런 경향을 더 부추기면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가고 만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제재 뒷문 열기에 나섰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현란한 쇼에 그치게 해선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상들이 만나 해법을 모색하는 일은 비핵화를 위해 절실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벤트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삶의 질이 높아지며, 평화와 통일이 이뤄지는 이적(異蹟)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여름휴가철을 신앙수련의 기회로

교회가 각종 여름행사로 분주한 시간을 맞게 된다. 대표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 각 기관별 수련회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학교생활에 쫓겨 틈이 없는 아이들에게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인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한 기회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해주셔서 새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한다. 각종 수련회를 통해 청장년들과 아이들에게 집중적인 성경교육이 가능하며, 기도예 전심을 기울일 수 있는 더없는 시간이며,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특히 교회학교가 쇠퇴해 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교

회학교 신앙훈련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차세대 신앙인들을 세우기 위한 준비인 만큼 결코 게을리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 철저히 준비된 교육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강화를 받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모세와 여호수아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해 일생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시절 올바른 신앙교육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의학이 발전할수록 불치병은 더 많아지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만족은 더 커지며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기계화에 구속되어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충성해야 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잠 22:6)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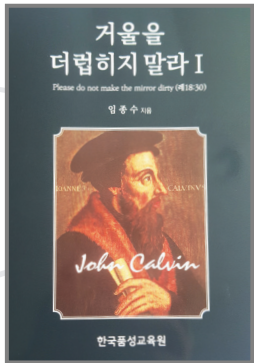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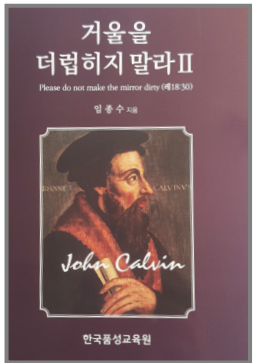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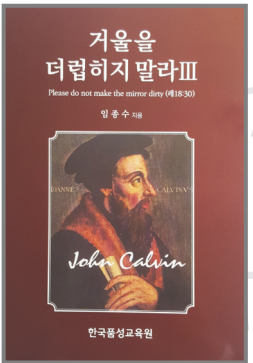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전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밭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동·부산·경남 지방회연합
영남동·대구경북 구역장 세미나

강사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정영진 목사
교단 서기
순복음갈릴리교회

일시 : 2019년 7월 9(화) 저녁 7시 30분
 장소 : 예수교대한 순복음갈릴리교회
 (담임 정영진 목사 010-3590-3156)
 주소 :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22번길 16 · 051)623-3927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를 가진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제1학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교부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8일(수)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접수 : 2019년 7월 8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